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지난해 대선 결과로 허탈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괴로워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며 험악하며 허탈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었고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에 이 나라는 '검찰 독재' 국가로 바뀌고 말았으니, 이제의 마음 속의 허탈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기가 막히고 암담하고 앞이 캄캄해 보인다. 나는 10대에 4·19를 만나 독재자 이승만은 하야해야 한다고 온종일 금남로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독재'에 대한 분노를 키워왔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갈수록 나는 바보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아무리 책을 봐도 덮고 나면 까무룩 하고 심치어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으니 앞날이 걱정이다.

내가 이렇게 심드렁하면 또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도 있다. "콩나물이, 제가 자라면서 마신 물을 기억하겠느냐고요... 물을 기억하지 못해서 콩나물이 자라지 못하더냐고요... 콩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콩이라는 씨앗의 토양 위에 이루어진 물의 퇴적물이 아니겠느냐고요..."

기고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원 대표

1989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공항에 착륙하던 한 항공기의 조종사가 관제탑에서 2400ft로 하강("descend two four zero")이라고 지시한 것을 400ft로 하강("descend to four zero")이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다.

'검찰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니

음을 바치며, 간절하게 자유를 갈구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오기를 꿈에도 바라면서 살아왔었다.

5·18로 전두환 독재를 막느라, 6·10항쟁으로 독재 타도를 외치느라 40대 중년의 세월도 바꿨다. 다행히 6·29 항복으로 '자유'의 가느다란 빛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한때, 군사 독재는 계속되고 있었다.

몇 개월 동안 지켜본 현 정권은 과거의 어느 독재 정권 못지 않게, 자유를 외치지만 하지 자유를 억누르고 있고,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지만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독재만 펼치고 있다.

자유를 그렇게 외치면서, 인간의 천부적 인권인 언론 자유를 가로막고, 패러디 하나 용납 못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찾아 가고 있다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법 위에 의한 지배이어야만 하는데, 대통령의 독단이 가능한 '시행령'으로 자유를 규제하려고 하는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출근 시 기자 문답'(Door Stepping)이라는 쇼를 벌리더니 이유없이 폐지하여 불통 정권의 본색만 보여주었고, 이런 독단을 또 어디서 보겠는가. 원활한 노사 관계를 수립하여 노동자들의 권익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권이 노조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노동권의 자유마저 위축시키고 있으니 이견 또 무슨 이유인가.

더 열거할 필요가 없다. 이상의 몇 가지지만으로도 국민의 진정한 권익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권이 말살되고 검찰을 앞세워 불공정과 몰상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런 독재가 세상에 어디 또 있었는가.

촛불이 더 타오르고 국민의 분노가 더 썰이기 전에 독재의 잘못을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동안의 무리한 정책이나 독단적 조치를 빨리 거두어들여야 한다.

슬래

해졌다. 삶은 남루하고 비루하고 씁쓸한 것투성이다. 그런 날엔 가까이 마련해 둔 은신처로 향한다. 식영정, 서하당, 소쇄원, 환벽당, 명옥헌, 독수정, 취가정, 송강정, 면양정, 풍암정...

오늘은 서하당(棲霞堂)이다. 노을이 깃드는 집이라니 이름만으로도 운치가 있다. 나는 먼저 식영정에 오른다. 서하당엔 잠깐 눈인사를 해두고 식영정 높은 누정에 올라 솔바람부터 쐬다. 멀리 물빛은 은은하고 바람은 청아하다. 건너편 산마루엔 구름이 피어난다.

뜰에는 굵은 나무들이 수행자처럼 서 있다. 지난가을엔 저 나무 밑에서 한 아홉 열매를 주었다. 떨어진 은행알이 발밑에 수북하여 그것들을 줍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다. '프레드릭'(레오 리오니의 동화)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았다. 따스하고 편안하다. 어린 날의 그 마루 같다. 마루 끝에 앉아 두 발을 대롱거리고 있노라면, 서걱거리며 일어나는 대숲 바람과 덧잎 위에 부서지는 맑은 햇살이 얼마나 부드럽고 따스했는지...

지금 여기, 해는 보이지 않으나 내 등은 아직 따스하고 마루의 온기도 식지 않았다. 나는 햇볕을 모으고 바람소리를 듣고 나무들을 바라보며 문득 슬래가 되었다. 아마도, 해는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 너머로 숨바꼭질을 하러 갔을 거다.

'어그레시브한 2023년'이 무슨 뜻일까

질문을 해 보는 것은 그의 말에 영어가 너무도 많이 섞여 있어서다. 잠시 기자들과 나는 대화를 들어보자. "디지털(Digital) 트랜스포메이션 커넥티드(Transformation Connected)와 연계해서 인클루시브(Inclusive)하게 방향을 터닝(Turning)하고 있어서 시리어스(Serious)한 논의도 별로 못했어. 지금 까지 아프로치(Approach)가 저는 좀 마일드(Mild)한 것 같아요."

"프루덴셜 레귤레이션(Prudential Regulation)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스템아티컬리(Systematically) 연결이 돼 있는 분야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의 디스럽션(Disruption)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지난해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다. 사적인 자리가 아니다.

메니는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니냐?"고 내게 물었다. 병원을 배경으로 한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의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된 전문 용어를 수도 없이 남발하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무언가를 논리적이면서 유려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포장하고자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거버넌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2023년에는 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봅시다"와 같은 말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社說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5·18 왜곡' 경종 되길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82)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수년 전부터 '북한군 개입설'을 허위로 퍼뜨려 5·18 왜곡에 앞장선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권위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엇그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책, 유튜브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깡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란 의미의 '깡주'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 비방을 일삼았다.

'아동센터 통학 차량 동승' 인력 지원 필요하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일명 '세미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유아 등 어린이가 탑승할 때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 탑승 및 안전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시내 유아동센터는 총 306곳이며 이 중 104곳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센터 대부분은 29인 이하 시설로 인력은 돌봄 교사와 센터장 등 평균 두 명이다.

보집을 통해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혐의로 각각 8200만 원과 9500만 원의 손해 배상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지 씨는 1심과 2심에서는 고령인데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조만간 구금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5·18에 대한 법학·역사적 평가는 이미 확립됐고, 국정원과 국방부가 20년 전부터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일부 극우 인사들은 왜곡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無等鼓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을 지키기 위해 아예 통학 차량 운행 중단을 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다. 한 명이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이 동승자로 나가면 센터에 아이들만 남게 돼 제대로 된 돌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학부모 동의를 얻어 개인 차량으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無等鼓

용혈암지(龍穴庵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47호)는 강진 도암면 덕룡산 남동쪽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암자터이다. 용혈(龍穴) 일대에 조성된 용혈암은 강진 백련사 소속 암자로 고려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양대 정민 교수에 따르면 고려말 폐허로 남긴 '용혈행' (龍穴行), 방치된 용혈을 주목한 '유용혈기' (遊龍穴記)와 이는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한 다산 정약용이었다. 다산은 교분이 깊었던 고승 아암 해장(阿庵海藏)을 통해 천책국사의 '호산록' (湖山錄)을 접하면서 용혈과 인연을 맺었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details.